



그린 IT가 살 길이다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차장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사태 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시작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야기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 반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정보기술(IT) 산업을 '녹색기술'과 접목,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녹색 기적'을 일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최근 각국 기업들이 친환경 비즈니스를 앞다퉈 강화하면서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신기술·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이산화탄소 제로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인 그린 홀과 그린 빌딩, 옥수수 녹말을 원료로 케이스를 만든 '옥수수 노트북 PC', 설탕물로 전기반응을 일으켜 충전하는 디지털 카메라 등이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환경이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인식되면서 돈과 기술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추세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기술 연구·개발(R&D)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그린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GE는 2012년까지 '1·30·30 플랜'(2012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30% 제고, 온실가스 집약도 30% 절감을 시행 중이다. 듀폰은 전체 사용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열병합 및 메틸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기술개발 경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111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기업들도 그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린 성장의 동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규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39개국은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도 2013년에는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화, 친환경 사업에서 많은 성장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린 IT는 또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요즘처럼 감산-감원 태풍이 휩쓸고 있을 때 눈여겨볼 대목이다. 영국 산업부와 혁신과학기술대학부는 최근 저탄소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리더가 됨으로써 2018년까지 2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 제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란 이름이 붙은 이 전략의 시행으로 향후 20년간 100만개의 '그린 잡(green job)'이 창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환경 관련 산업은 2005년 5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국 제약산업 고용규모의 10배에 해당한다. 독일과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시작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20% 정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유럽에서만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원경 기자